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 여성과 소비 | 교단일기 | 스토리텔링 파워

농촌의 쇠퇴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다

국령애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로 먹을거리는 충분하고 다양해졌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상생의 원리를 잃어버린 농업과 식품생산방법은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국, 칠레 등과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먹는 음식 중 거의 대부분이 수입농산물이다.

아침에 먹을 빵을 한 아름 안고 곁들여 먹을 과일을 찾는 주부들의 손길과 발길은 오렌지나 바나나, 망고 등의 수입과일로 향한다. 여기에 주스나 우유 또는 커피 한잔이면 우아하고 멋진 아침 식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간편함과 세련됨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굳이 번거로운 밥을 먹는 것보다는 빵이 준비하기도 간단하고, 영양가도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이런 일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포스트 하비스트(수확 후 농약)에 관한 비디오 자료를 볼 것을 권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밀밭에 비행기로 농약을 치는데 단일 작물의 경우 더 많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쏟아 붓는다.

또 저장과정에서 창고에 가득 찬 밀가루에 엄청난 양의 농약을 쏟아 붓는 장면도 보아야 한다. 수입과일 역시 공정만 다를 뿐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농약으로 샤워를 하고 싱싱하고 반듯한 모양으로 위장을 한다.

현대인들의 수입농산물 위주 식생활은 미각의 왜곡과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정서 파괴로 이어진다. 최근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현상이나 청소년 폭력 등 정신적 문제가 식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 교육과 농촌과의 상생전략을 찾는 일이다.

식생활 교육의 첫걸음은 먹을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도시건, 농촌이건 텃밭 가꾸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상추나 고추는 물론이고, 파나 방울토마토, 허브 등의 약용식물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텃밭을 직접 가꾸어 보면 매일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말라죽거나 벌레들에게 잎사귀를 뜯겨 구멍이 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체험으로 알게 하는 것이 참교육 아니겠는가.

식생활 교육의 또 다른 방법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요리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식탁에서 한 끼 식사를 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한 끼 식사를 차리는데 한두 시간은 족히 걸린다. 자녀에게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어렵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다. 그러나 음식교육은 멀리 보고 접근해야 한다.

어린 시절, 나의 할머니는 음식교육에 철저하셨다. 설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만들 때는 언제나 우리 어린 형제들을 도우미로 썼다. 씻고 다듬는 일은 물론이고, 때로는 부엌에 앉아서 불을 때면서 조청을 만들거나 식혜를 끓이는 일을 도왔다. 화롯가에서 전을 지질 때에도 잘 지져진 전을 채반에 담는 일을 시켰다. 그러다가 모양이 변변찮은 전은 화롯가에서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때 먹은 음식 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침·저녁 밥상을 차리는 일도 꼭 거들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음식교육이다. 보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요리하는 것을 돕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밥상이 바뀐다.

또한,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도시를 시장 삼아 소비하게 하는 도농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가란 도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농촌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의 농촌은 마치 '나라'가 아니 것처럼 소외당하고 있다.

농산물을 팔 시장이 없어지거나, 농업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생태계의 파괴이자, 전통문화 및 식량안보, 국가 자주권의 상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이 소수 몇몇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세계화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쇠퇴는 곧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위협인 까닭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기업 콩새미 대표·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낙엽을 바라보며

서달원

아침마다 성당 마당 한가득 낙엽이 떨어집니다. 저렇게 떨어지는 낙엽들은 한해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크고 넓은 활엽수 잎이든 가늘고 뾰족한 침엽수 잎이든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위해 햇볕을 받아 광합성작용을, 비와 이슬을 머금어 나무에 수분을,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여러 생명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일들을 했었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겨우 한철 나무에 붙어있다 떨어지는 낙엽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과 수고가 적었다고 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제 아랫마을(환우 성당) 공동체 형제 한 분이 공동체를 떠나 하느님 나라로 불리어 갔습니다.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서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았는데 전날 저녁 늦게 돌아가셨다고, 사정상 오늘 장례를 치러야겠다고, 오전 시간에 염습을 해줄 수 있겠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러자고 해놓고 얼마 전 뵈었을 때 모습을 떠올려보니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크게 부릅뜨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안압이 높은가?' 싶었는데 염습을 하면서 보니 그동안 애타게 보고 싶던 가족들을 기다리던 눈빛이었나 봅니다.

염습 장소에는 부음을 받고 떨어져 있던 부인과 두 딸이 와 있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이별을 맞는 부인의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두서없는 말마디와 울음으로, 자신들을 그토록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주 와보지 못한 딸들의 눈에서는 미안함과 후회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몸을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신 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을까? 병들고 나이 들어 가족이 보고픈 대도 기대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그리며 서운한 마음을 품었을까? 아니면 내 일모레 날짜가 잡힌 딸아이의 결혼식에 참석도, 사위에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소개도 할 수 없는 처지를 두고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었을까?

병고에 시달리며 아파했던 흔적을 닦아드리며 한편으로 서운했을, 또 한편으로는 남겨두고 가는 가족들에게 미안했을,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면서 어쩌면 품었을지도 모르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까지도 닦아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주제 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들의 나이보다도 훨씬 젊은 사목자를 아버지(神父:영혼을 돌보는 목자)라고 불렀는데 아버지 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저 자신의 삶에 용서를 청합니다. 수의를 입혀드리며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낙엽이 나무들의 거름이 되어 가을 지나고 봄이 오면 새 생명으로 되살아나듯이 고인이 살아왔던 삶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공동체의 사제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서, 그것이 이유 아닌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 제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돌아오는 쉬는 날에는 본가에 다녀와야겠습니다.

〈고흥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기고

성교육, 인터넷에 맡길 셈 인가요?

양동옥

"또 해요? 저번에도 성교육 받았단 말이에요. 10대 임신은 위험하다!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만날 똑같은 소리 지긋지긋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중학교 남학생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한다.

"강당에 학생들 몰아넣고 비디오나 틀어주는데 이게 무슨 성교육이에요? 이런 것 시시해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알 건 다 안다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의 볼멘소리다.

"애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의무적이라 어쩔 수 없이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순진해요. 괜히 성관계가 어떻고 피임이 어떻고, 너무 자세히 알려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호기심만 잔뜩 불어넣을까 걱정이에요. 학생 신분에 맞게 몸관리나 성폭력 예방 중심으로 강의해 주세요." 학교 관계자의 당부 말이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2010년 전국 학생 성교육 실태 조사에서 초등학생 64.0%, 중학생 37.6%, 고등학생 24.7%가 학교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셈이다.

그렇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냥 손뼉 칠일만도 아니다. 초등학생 7.9%, 중학생 32.2%, 고등학생 47.8%가 인터넷에서 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어, 자칫하면 성교육의 왕좌를 무분별한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에 내어 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들의 입에서는 '21세기 아이들에게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사가 성교육을 한다.'라는 비웃음 섞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것과 학교 성교육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또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교 성교육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그나마 근근이 이어오던 성교육이 축소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130개 중학교 중 올해 보건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231곳에 불과하다.

또 2263개 고등학교 중 보건과목 선택 학교는 고작 81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통해 10시간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일 성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등 그야말로 현시대의 삐뚤어진 성문화를 비판하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성교육은 성폭력이나 성매매, 10대의 임신과 같은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 반짝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도 임신과 성폭력 예방 차원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성문화를 알려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적인 존재로서 느낌과 수용, 성욕구의 관리, 조화로운 삶의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성행동을 할 힘을 길러줘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소수 인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교육은 몇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 사회 미래의 주체가 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성교육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건강과 성 박물관 관장·성교육 전문가〉

친환경 인증 마크 상세한 설명없어 소비자는 헷갈린다

집에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항상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만 사먹고 있다. 출처도 잘 모르고 어떤 농약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 중국산이나 기타 다른 나라 농산물을 사먹기에는 너무나 찝찝하다. 아마도 우리나라 주부라면 대부분 그런 마음일 걸로 본다.

다만,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마트에 가서 친환경농산물을 고르려고 하면 그 해당표시가 너무 헷갈린다. 즉 친환경농산물임을 표시하는 마크가 'G' 'KPGI' 'NHQ' 'GAP' 등 비슷비슷한 표기로 친환경 인증이 붙어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농산물 중 어떤 인증이 더 좋고 믿을 수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물론 그 마크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한 이름과 뜻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사먹는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고 헷갈려한다면 그건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건강을 최고로 생각한다. 그래서 값싸고 질 나쁜 외국산 농산물보다 정성껏 재배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최고로 치며 그만한 값을 지급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사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써 농사지은 우리의 좋은 농산물을 제대로 애용하도록 이런 마크 하나하나에도 더 신경을 쓰고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낸 친환경농산물이 이런 이유로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면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주므로 친환경농산물 관련 인증과 마크를 좀더 알기 쉽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062-2200-628팩스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MB 정부 노골적 '호남 배제' 해도 너무한다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인사는 물론 각종 국책사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호남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MB 정부는 지난 5·6 개각 때 5명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영남 3명, 충청·강원 각 1명 등 호남 출신을 배제하더니 16일 청와대 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 역시 단 1명도 기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문광부 1차관에 경북 출신을 내정한 것을 비롯, 4명의 청와대 비서관도 경남 2명, 경기 1명, 충남 출신 1명을 임명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2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1명도 없이 전멸한 것이다.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동한 박재영 행정자치비서관이 청와대 내 유일한 지역 출신이었다.

청와대 비서관 자리는 주어진 임무 외에 출신지역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지역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지역과의 소통이나 민심 청취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중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지난 8월 장관 인사에서도 이귀남 법무부장관 교체 이후 이 지역 출신은 찾기 어렵다. 그동안 극히 일부 인사가 발탁되기는 했으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J프로젝트가 수년째 방치되고, F1 대회도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고 있는 등 소외당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같은 소외는 현 정권이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과도 정면 배치된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편중해서는 소통과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공평무사한 인재 발탁과 균형정책만이 레임 덕을 늦추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의원들 '음주 뺑소니' 이대로 두고 볼 건가

전남도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의원들이 잇따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가하면 의원 간에 폭행 사건에 이어, 일부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윤리위원회는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사과 표명조차 없는 실정이다.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모(64) 의원은 15일 밤 강진읍 모 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조치 없이 도주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정모(51) 의원이 장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하다 붙잡혀 망신을 샀다.

최근에는 건설소방위 연찬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주먹다짐을 하다 경찰에 불려가는 추태를 보였다. 특히 여수지역 도의원 3명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3명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도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회기 중 해외연수를 떠나거나, 이권에 개입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원의 윤리심사와 자격,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자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닐 수 없다.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을 어긴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잘못을 질책할 수 있겠는가. 제도적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는 판에 일탈행위를 한 의원들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젠 주민의 힘으로 소환제 등을 통해 함량 미달의 의원들을 지방정가에서 퇴출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뿌리째 썩게 되고, 그 피해는 지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無等鼓

코르넬리아

그라쿠스 형제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개혁 정치가다. 형 티베리우스는 BC 133년에 호민관에 선출되자 자장농을 육성하는 토지개혁을 비롯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원로원의 보수적인 귀족 반대파에 밀려 끝내 죽임을 당했다. 10년 후 동생 가이우스도 호민관이 되자 형의 개혁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살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비록 실패했지만 과감한 개혁의 기치를 올린 선봉장으로 역사에 남아있다. 형제의 개혁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로마 최고의 귀족 출신이면서도 목숨을 바쳐가며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했다는데 있다. 이런 이면에는 어머니 코르넬리아의 자녀교육에 있다.

코르넬리아는 제2차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물리쳐 로마를 구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이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 앞에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줄을 섰다. 그 중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도 있었다. 왕은 직접 왕관을 바치며 구혼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화보다는 자녀를 훌륭히 교육시키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판단해 정중히 그의 청을 거절했다.

그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날 그녀의 집에 로마의 내로라하는 귀부인들이 모여 각자 자기집에서 가장 아끼는 보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다이아몬드니, 금팔찌니 하며 자랑을 하면서 코르넬리아에게도 보석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코르넬리아는 조용히 그라쿠스 형제를 데리고 나와 "얘들이 바로 나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라고 말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코르넬리아를 역사 속 가장 유능한 어머니로 꼽았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성적통지를 앞두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자녀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주는'엄친아'들이 많다. 아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준 코르넬리아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